

독일의 타이어산업 현황

기술부

여기에 인용된 각종 통계 및 참고자료는 별도 설명이 없는 한 모두 서독의 것이며, 현재 통일독일에 대한 각종 통계는 계속 작성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동독은 통일독일 총인구의 22%에 불과하며, 또한 경제비중도 크지 않다. 예를들면, 타이어의 경우 1991년도 기준 통일독일 총교환용 타이어시장의 10%를 점유(표 17 참조)하는 데 그쳤다. 특히 서독과 동독이 화폐를 통일하여 사용함에 따라 승용차 및 타이어의 수요가 폭발하였으나 현재는 안정되었다.....〈筆者註〉

1. 타이어 생산현황

독일은 세계 제4위, 유럽에서는 프랑스 다음으로 제2위의 타이어 생산국이다. 1990년의 타이어 생산중량은 636,000톤으로서, 1989년대비 0.9%가 감소하였으며, 1991년에는 630,000톤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타이어 생산중량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 타이어 수출이 부진한 데다 세계적으로 타이어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다국적 타이어회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타이어를 많이 생산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도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중량은 1989년도보다 1.8% 감소한 359,000톤으로서 총타이어 생산중량의 56.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90년도 상용차용 타이어 생산중량은 176,000톤으로서 총타이어 생산중량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도 상용차용 타이어 생산중량은 1989년도보다 1.2%가 증가하였으며, 소형 상용차용 타이어 생산중량은 4.6%가 감소한 반면에 대형 상용

차용 타이어(트럭)는 3.7%가 증가하였다.

1990년도에는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건설차량용 타이어 생산 및 판매량은 1989년도보다 17.6%가 증가한 반면에 농업기계용 타이어의 생산 및 판매량은 11.9%나 감소하였다. 농업기계용 타이어중 트랙터용 타이어 생산량은 7.2%가 감소하였으나, 트랙터용 타이어를 제외한 다른 농업기계용 타이어 생산량은 23%나 감소하였다.

〈표 1〉 독일의 증량기준 타이어 생산현황(1986~1990)
(단위 : 1,000톤)

타이어 종류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승용차용 타이어		311.3	342.4	362.0	365.3	358.6
상용차용 타이어		142.5	147.9	164.7	173.7	175.8
농업기계용 타이어		26.2	20.1	21.4	20.1	17.7
기 타		39.9	32.4	32.7	37.4	38.0
타이어 약세서리		52.3	43.3	42.8	44.3	45.5
계		572.2	586.1	623.6	641.4	635.6

자료 : Wirtschaftsverband der deutschen Kautschukindustrie eV(WDK)

〈표 2〉 타이어 종류별 생산액(1986~1990)
(단위 : 100만마르크)

타이어 종류 \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승용차용 타이어	3,898	4,093	4,242	4,295	4,289
상용차용 타이어	1,759	1,768	1,867	1,967	1,984
농업기계용 타이어	352	316	314	328	335
기 타	480	456	485	547	573
타이어 약세서리	373	328	325	345	356
계	6,862	6,961	7,233	7,482	7,537

자료 : WDK

※ 타이어 종류별 생산액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것은 〈표 3〉에 나타나 있음.

〈표 3〉 1990년도 타이어 종류별 생산액

타이어 종류 \ 구분	생산액 (100만 마르크)	1990/1989 비율(%)
승용차용 타이어	4,288.9	-0.2
상용차용 타이어	1,983.4	0.9
트랙터	270.4	5.3
모터사이클	165.6	3.6
솔리드 타이어	126.7	4.5
건설차량용 타이어	113.6	7.7
농업기계용 타이어	64.7	-9.2
로더 트럭용(Loader truck) 타이어	51.4	-9.2
자전거 및 모페드용 타이어	50.6	24.8
상업용 타이어	45.2	-1.3

자료 : WDK

1990년도에 생산된 승용차용 타이어는 4,300만개였고, 상용차용 타이어는 550만개였다. 세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타이어는 자전거 및 모페드용 타이어로서 생산량은 450만개였으며, 그 다음

은 모터사이클용 타이어로서 생산량은 180만개였다.

2. 타이어회사

독일에는 모두 8개의 타이어회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오직 Continental만이 유일한 독일 회사로서 독일에서 가장 큰 회사이다. Continental은 1991년에 이탈리아의 타이어회사인 Pirelli가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1991년말 Pirelli가 이 계획을 포기하였다.

Pirelli가 Continental을 인수하려고 한 이유는, 첫째 여러가지 종류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고, 둘째 해외로 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제4위의 타이어회사로 부상할 수 있으며, 세계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특히 일본 타이어회사와 경쟁하기 위함). Pirelli는 타이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소매시장에서 고품질의 타이어라고 소비자에게 인식되어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Continental은 Pirelli가 고성능 승용차를 만들고 있는 독일의 자동차회사에 신차용 타이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Continental과 Pirelli가 합병됨으로써 Continental은 남부 유럽의 타이어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두 회사의 판매망을 통하여 미국의 타이어시장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위상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또한 두 회사가 합

〈표 4〉 타이어 종류별 생산량(1986~1991)

(단위 : 1,000개)

타이어 종류 \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승용차용 타이어	38,838	42,892	43,627	44,101	43,277	42,540
상용차용 타이어	4,023	4,192	5,017	5,366	5,475	5,940
계	42,861	47,084	48,644	49,467	48,752	48,480

*EIU 추정

자료 : International Rubber Study Group.

병하게 되면 생산원가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독일에 4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 Continental은 Aachen에 1개의 Uniroyal공장과 오스트리아 및 아일랜드에 Semperit공장을 갖고 있다. 또한 Continental은 현재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이어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시설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편 Continental은 Pirelli와의 합병계획이 실패한 후 독자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도 합병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Continental의 불황타개계획중에는 새로운 타이어 개발, 생산시설의 현대화, 동유럽 타이어시장 확대 등이 있다.

Continental은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능력을 미국의 자회사인 General 타이어에서 타이어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1992년도 기준에서 동결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생산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트럭용 타이어 생산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생산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Continental그룹의 1991년도 매출액은 8.8%가 증가하여 93억마르크였다. 1991년도 유럽에서의 타이어 매출액은 12.5%가 증가한 47억마르크였으며, 고무제품 매출액은 2.8%가 증가한 22억마르크였다. 한편 General타이어의 매출액은 9%가 감소한 23억마르크였다. Continental은 1992년도의 매출액은 1991년도보다 10%가 증가한 100억마르크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매출액중 54%는 유럽, 22%는 미국에서의 매출액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Continental그룹은 미국의 자회사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4억마르크의 흑자가 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Continental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 있는 타이어회사를 폐쇄함으로써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독일에서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 외국 타이어

회사중에는 Michelin이 있으며, 이 Michelin은 독일에서 가장 큰 외국 타이어회사로서 5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 공장들은 모두 자회사인 Kléber Reifen에 속해 있다. Goodyear는 Phillipsburg 및 Fulda에 각각 1개씩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 공장은 고속용 타이어만을 생산하는 전문공장이다.

Pirelli는 독일의 Breuberg 및 Merzig에 각각 1개씩의 공장을 갖고 있고, Sumitomo는 독일에 SP Reifenwerke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자회사는 Hanau와 Wittlich에 있는 공장에서 Dunlop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3. 수출 및 수입

독일은 각종 타이어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는데 종류별 수출금액에는 차이가 많다. 승용차용 타이어는 총생산량의 1/3(32.3%)을, 상용차용 타이어는 총생산량의 36.8%를 수출하고 있다. 반면에 자전거 및 모페드용 타이어는 총생산량의 17%를, 모터사이클용 타이어는 총생산량의 50%를 수출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타이어 수출 및 수입통계자료에는 직수출 및 재수출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몇년동안의 Statistisches Bundesamt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0년도 독일의 수출액은 2,699백만마르크로서 1989년도의 2,882백만마르크보다 6.7%가 감소하였다. 타이어 종류별 수출액을 보면 1990년도 승용차용 타이어 수출액은 1,629백만마르크로서 1989년도의 1,730백만마르크보다 6.2%가 감소하였으며, 1990년도 상용차용 타이어 수출액은 767백만마르크로서 1989년도의 842백만마르크보다 9.7%가 감소하였다. 연도별, 주요국별 수출실적은 거의 변화가 없다.

독일의 EC에 대한 수출은 총수출액의 65.9%를 차지하고 있으며, EC 국가중에서는 프랑스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 1990년도 독일의 총수

출액중 프랑스가 15.1%, 이탈리아가 11.7%, 벨기에가 11.5%를 점유하였다.

이처럼 수출이 감소한 반면에 수입은 증가하여 1990년도 타이어 수입액은 2,998백만마르크로서 1989년도의 2,925백만마르크보다 2.5%가 증가하였다. 이 수입액중 약 63%는 다국적 타이어회사들이 각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수입한 것이다. 1990년도의 타이어 수출액은 2,699백만마르크인 데 비해 수입액은 2,998백만마르크로서 수입액이 299백만마르크가 많아 적자를 나타냈다.

1990년도 승용차용 타이어 수입량은 2,730만개였고, 금액으로는 약 17억마르크로서 1989년도보다 수량으로는 2.8%, 금액으로는 0.4%가 증가하였다. 모터사이클용 타이어의 수입은 수량으로는 1,510만개, 금액으로는 5,720만마르크로서 수량 및 금액 모두 22.5%나 급증하였다. 수입은 주로 가격이 저렴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하고 있다.

1990년도 상용차용 타이어의 수입은 수량으로

〈표 5〉 타이어 수출실적(1986~1990)

(단위 : 100만마르크)

타이어 종류 \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승용차용 타이어	1,307.1	1,469.4	1,619.3	1,730.0	1,629.1
상용차용 타이어	701.4	734.5	773.9	842.7	766.8
기 타	278.1	268.9	290.0	310.1	303.4
계	2,286.6	2,472.8	2,683.8	2,882.8	2,699.3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표 6〉 타이어 수입실적(1986~1990)

(단위 : 100만마르크)

타이어 종류 \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승용차용 타이어	1,318.4	1,378.3	1,536.4	1,568.8	1,576.8
상용차용 타이어	674.2	673.7	729.9	793.0	814.8
기 타	469.3	454.5	501.6	563.2	606.3
계	2,461.9	2,506.5	2,767.9	2,925.0	2,997.9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는 316만개, 금액으로는 815만마르크로서 1989년도보다 수량으로는 8.5%, 금액으로는 2.8%가 증가하였다.

〈표 7〉 국가별 승용차용 타이어 수입실적(1990~1991)
(단위 : 1,000개, 100만마르크)

국가	연도 구분	1990		1991(1~9)	
		수량	금액	수량	금액
EC	프랑스	8,790	478	8,174	471
	벨기에/룩셈부르크	958	66	852	55
	네덜란드	3,264	203	2,546	164
	이탈리아	1,703	124	1,936	136
	영국	3,846	189	2,856	151
	아일랜드	978	42	791	36
	스페인	1,523	83	1,444	74
	포르투갈	43	2	50	2
	덴마크	22	1	20	2
	그리스	88	4	95	4
기타 국가	오스트리아	703	48	490	32
	유고슬라비아	721	27	561	21
	미국	784	58	607	48
	한국	473	25	398	18
	일본	2,422	168	2,488	180
기타	1,017	159	946	50	
계	27,335	1,677	24,254	1,444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표 8〉 국가별 소형 상용차용 타이어 수입실적(1990~1991)
(단위 : 1,000개, 100만마르크)

국가	연도 구분	1990		1991(1~9)	
		수량	금액	수량	금액
EC	프랑스	207	38	213	36
	벨기에/룩셈부르크	282	48	210	37
	네덜란드	61	5	57	5
	이탈리아	146	17	117	13
	영국	362	30	277	27
	스페인	19	3	14	1
기타 국가	오스트리아	178	18	81	10
	체코슬로바키아	11	1	8	1
	미국	83	6	78	6
	일본	260	28	134	15
	기타	29	7	71	9
계	1,638	201	1,260	160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상용차용 타이어의 EC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수출보다 많다.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아 거의 27%나 되며, 영국은 프랑스의 1/2 정도

가 된다. 그 다음으로는 네덜란드(9.2%), 이탈리아(8.3%), 벨기에/룩셈부르크(7.9%)의 차례이다.

〈표 9〉 국가별 중형 및 대형 상용차용 타이어 수입실적 (1990~1991)

(단위 : 1,000개, 100만마르크)

국가	구분	연도 1990		1991(1~9)	
		수량	금액	수량	금액
EC	프랑스	241	123	204	105
	벨기에/룩셈부르크	300	101	270	87
	네덜란드	44	28	44	26
	이탈리아	130	63	107	52
	영국	320	133	242	105
	스페인	62	34	36	23
기타 국가	오스트리아	93	35	96	35
	일본	194	63	205	62
	기타	144	33	114	27
	계	1,528	613	1,318	522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표 11〉 주요국별 소형 상용차용 타이어 수입실적 (1990~1991)

(단위 : 1,000개, 100만마르크)

국가	구분	연도 1990		1991(1~9)	
		수량	금액	수량	금액
EC	프랑스	324	38	252	26
	벨기에/룩셈부르크	131	15	77	9
	네덜란드	115	15	83	10
	이탈리아	279	31	243	77
	영국	428	49	209	26
	스페인	72	11	77	11
기타 국가	오스트리아	104	13	85	9
	미국	73	6	35	3
	호주	11	2	4	1
	기타	573	42	272	-
계	1,902	222	1,337	172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표 10〉 주요국별 승용차용 타이어 수입실적(1990~1991)

(단위 : 1,000개, 100만마르크)

국가	구분	연도 1990		1991(1~9)	
		수량	금액	수량	금액
EC	프랑스	3,658	241	2,853	182
	벨기에/룩셈부르크	4,121	225	2,636	148
	네덜란드	2,416	172	1,999	146
	이탈리아	2,568	181	1,882	140
	영국	1,755	120	1,707	109
	덴마크	379	23	266	18
	스페인	827	60	848	60
기타 국가	스위스	1,306	105	1,084	85
	오스트리아	1,284	89	1,137	78
	미국	1,553	101	1,055	73
	일본	1,015	79	579	46
	호주	132	10	90	7
	기타	3,147	222	2,812	186
계	24,161	1,628	18,948	1,278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표 12〉 주요국별 중형 및 대형 상용차용 타이어 수입실적 (1990~1991)

(단위 : 1,000개, 100만마르크)

국가	구분	연도 1990		1991(1~9)	
		수량	금액	수량	금액
EC	프랑스	182	73	121	49
	벨기에/룩셈부르크	133	57	84	38
	네덜란드	125	54	97	42
	이탈리아	172	63	144	45
	스페인	75	37	43	19
	기타 국가	오스트리아	52	19	54
미국		145	48	94	27
이란		37	13	50	17
사우디아라비아		26	8	32	11
기타		438	172	323	24
계	1,385	544	1,042	293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표 13〉 연도별 고성능 신차용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비율(1984~1990)

(단위 : %)

연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고성능(속도)							
SR/TR	70	68	68	59	57	56	54
HR	25	25	24	32	31	30	28
VR/ZR	5	7	8	9	12	14	1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S,T,H,V,Z는 속도기호. S : 최고속도 180km/h, T : 최고속도 190km/h, H : 최고속도 210km/h, V : 최고속도 240km/h, Z : 최고속도 240km/h 이상. R은 Radial의 약자임.

자료 : Bundesverband Reifenhandel und Vulkaniseur Handwerks eV(BRV).

4. 타이어시장

(1) 타이어시장 분석(1990~1991)

1990년도 독일에 있는 타이어회사의 타이어 매출은 금액으로 75억마르크로서 1989년도보다 0.7%가 증가하였으며, 1991년도에는 79억 8,000만마르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도 내수 판매는 50억마르크로서 1989년도보다 2.4%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출은 25억마르크로서 1989년도보다 2.6%가 감소하였다. 이와같이 수출이 감소한 원인은 수입국들의 승용차 생산감소에 따른 신차용 타이어의 수입감소 및 일부 해외국가들의 타이어 생산능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독일은 내수판매에 큰 변화가 있었다. 1990년도의 교환용 타이어 판매액은 31억마르크로서 1989년도보다 6.9%가 증가하였는 데 반하여 신차용 타이어는 수량으로는 4.5%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회사들의 가격인하압력 때문에 금액으로는 4.2%가 감소한 19억마르크였다.

1991년도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액은 43억마르크로서 1990년도보다 0.2%가 감소하였으며, 내수판매액은 29억마르크로서 1990년도보다 0.1%가 감소하였고, 수출은 14억마르크로서 1990년도보다 0.6%가 감소하였다.

1990년도 교환용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액은 19억마르크로서 1989년도보다 4.3%가 증가하였

으며, 신차용 승용차용 타이어는 수량으로는 4%가 증가하였으나, 금액으로는 10억마르크로서 1989년도보다 7.2%가 감소하였다. 1990년도의 신차용 타이어 가격은 고가인 고성능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1989년도보다 11%나 하락하였다. 자동차회사에서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을 경쟁시켜 가격인하를 꾀하고 있다.

1990년도 상용차용 타이어 판매액은 1989년도보다 0.9%가 증가한 20억마르크였으며, 교환용 상용차용 타이어 판매액은 13%나 증가한 데 반하여 신차용 상용차용 타이어 판매액은 2.6%가 감소하였다. 1990년도 상용차용 타이어 수출액은 1989년도보다 7.2%가 감소하였다.

(2) 신차용 타이어 판매증가

지난 3년간은 독일이 통일됨에 따라 승용차 생산 및 신규등록대수가 급증하였다. 또한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의 무역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동유럽국가들은 서유럽 특히 독일로부터의 중고 승용차의 수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됨에 따라 통일되기 전의 동독에서는 승용차등록대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서독에서는 신차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자동차 생산량은 1990년도에 498만대이던 것이 1991년도에는 502만대로 증가하여 피크를 이루었다. 승용차 생산량은 466만대로서 증가하지

않았으나, 상용차 생산량은 1990년도보다 12%가 증가한 355,300대였다. 특히 소형 상용차(6톤까지) 생산량이 급증하여 200,700대나 되었다.

1991년도의 신차용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량은 1990년도와 별 차이가 없는 2,330만개였으며, 신차용 소형 상용차용 타이어 판매량은 118만개, 중형 및 대형 상용차용 타이어 판매량은 128만개로 증가하였다.

앞으로 10년 이상 독일의 신차용 타이어 판매 전망은, 특히 독일의 자동차회사들이 해외에서 자동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밝지 않다. 독일의 해외에서의 자동차 생산량은 1990년도의 184만대에서 1991년도에는 188만대로 2%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교환용 타이어의 수요증가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교환용 승용차용 타이어시장으로서 1986년도에 서독에서는 2,100만개의 교환용 승용차용 타이어가 판매되었고, 독일 통일 후인 1991년도에는 2,960만개(동독 포함)가 판매되었다. 교환용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량은 1989년도를 제외하고 지난 몇년동안 계속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 자동차의 평균주행거리 는 감소하였지만, 고성능 광폭(고속용 래디알 타이어로서, 특히 240km/h의 속도기호 V인 래디알 타이어) 래디알 타이어의 수요는 증가하였다.

여름용 타이어 판매량은 1985년도의 1,605만 개에서 1991년도에는 2,100만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5년도의 여름용 타이어 통계에서 동독은 제외되었다. 그동안 여름용 타이어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1년중에는 3월과 4월에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

(4) 겨울용 타이어

1985년도에는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겨울용 타이어가 많이 판매되었으나, 1986년도와 1987년도에는 약간 부진하였다. 그러나, 1990년도와 1991년도에는 기후와는 관계없이 회복되었다. 겨울용 타이어는 1년중 11월에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11월 및 12월에 판매되는 겨울용 타이어가 겨울용 타이어 총판매량의 3/4을 점유하고 있다. 겨울용 타이어 판매량 가운데 55%는 속도기호 Q(160km/h), 38%는 속도기호 T(190km/h), 7%는 속도기호 H(210

〈표 14〉 교환용 타이어 판매실적(1986~1991)

(단위 : 100만개)

타이어 종류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승용차용 타 이 어	겨울용 타이어	4.35	5.20	5.02	4.35	4.80	5.00
	증가율(%)	-2.2	18.2	-3.3	-13.9	10.0	4.2
	여름용 타이어	16.65	18.10	19.04	18.98	20.50	21.00
	증가율(%)	3.1	8.5	5.2	-0.3	8.0	2.4
	총승용차용 타이어	21.00	23.30	24.06	23.35	25.90	26.65
	증가율(%)	1.9	11.0	3.5	-3.1	10.4	3.3
	소형 상용차용 타이어	1.15	1.19	1.29	1.29	1.46	1.50
	증가율(%)	2.5	3.0	8.2	0.5	12.6	2.7
	중·대형 상용차용 타이어	0.93	0.98	1.01	1.01	1.05	1.07
	증가율(%)	3.4	3.3	5.7	-	4.0	1.9
	모터사이클용 타이어	0.90	0.85	0.84	0.85	0.90	0.91
	증가율(%)	-	-5.6	-1.2	1.2	4.7	1.0

자료 : BRV.

km/h)의 타이어이다.

(5) 상용차용 타이어

교환용 소형 상용차용 타이어 판매량은 1980년대 중반의 113만개에서 1991년도에는 150만개로 증가하였다. 교환용 중형 및 대형 상용차용 타이어 판매증가율은 연간 3~4%로서 교환용 소형 상용차용 타이어 판매증가율보다는 낮다. 교환용 중형 및 대형 상용차용 타이어 판매량은 1985년도의 90만개에서 1991년도에는 107만개로 증가하였다.

(6) 신생 및 재생타이어 판매

교환용 승용차용 타이어 총판매량중 재생타이어 판매비율은 1986년도의 17%에서 1991년도에는 9%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교환용 상용차용 타이어 총판매량중 재생타이어 판매비율은 1985~1987년 사이의 23%에서 1991년도에는 21%로 감소하였으며, 또한 교환용 대형 상용차(트럭)용 타이어 총판매량중 재생타이어 판매비율은 1985년도의 52%에서 1991년도에는 49%로 감소했다.

독일에는 150개의 재생타이어회사가 있으며, 이 가운데 Continental이 경영하고 있는 Vergoelst사가 재생타이어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한 신생타이어도 판매하고 있다. 독일의 재생타이어 기술수준은 매우 높으며, 이것은 다사용한 타이어를 재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승용차용 타이어시장에서는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값싼 고성능 타이어와의 경쟁 때문에 신생타이어의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재생타이어의 수요는 많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용차용 타이어시장에서는 신생타이어와 재생타이어가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타이어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있다.

(7) 브랜드별 점유율

독일의 타이어시장에서는 모든 유명 브랜드의

타이어가 판매되고 있다. 타이어회사들은 타이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을 밝히려고 하지 않지만, 유명 타이어 브랜드가 교환용 및 신차용 타이어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승용차용 타이어시장에서는 Michelin 브랜드 타이어가 20% 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Continental, Pirelli, Uniroyal, Dunlop순으로 되어 있다.

상용차용 타이어시장에서는 Continental 브랜드 타이어가 33%를 점유하고 있고, Michelin 브랜드 타이어가 25%를 점유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Goodyear, Dunlop, Pirelli, Firestone이 점유하고 있다.

5. 유통구조

지난 몇년동안 독일에서는 타이어 전문소매점에서의 교환용 승용차용 타이어의 판매비중이 점점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교환용 승용차용 타이어 총판매량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어 교환용 승용차용 타이어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승용차수리점에서의 교환용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비율은 1985년의 20%에서 1991년에는 24%로 증가하였다. 한편 서비스 스테이션, 할인판매점(하이퍼마켓)에서의 교환용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비율은 지난 몇년동안 큰 변화없이 8%를 유지하고 있다.

타이어 전문소매점들은 타이어회사의 가장 중요한 판매망의 하나로서 타이어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타이어 전문소매점들이 교환용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시장을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타이어도 판매하면서 타이어에 관련된 서비스도 해주고 있다.

타이어 유통구조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주요 타이어회사들은 자기들의 타이어 전문소매점을 설치하거나 또는 독립 타이어 소매점을 갖고 있다.

타이어회사의 지원 및 통제를 받고 있는 타이어

어 전문소매점들이나 독립 타이어소매점들은 모두 다른 브랜드 타이어도 판매하고 있다. 독립 타이어소매점들은 타이어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 타이어 전문소매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 가운데 독일에서 가장 큰 것은 TEAM Reifen Union으로서 회원은 166개의 독립 타이어소매점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의 The French Point S그룹의 판매체인은 독일까지 진출하여 독일에 250개의 독립 타이어소매점을 갖고 있다. 또한 The Stinnes Reifendienst라는 판매체인은 208개의 독립 타이어소매점을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 160개는 독일(동독에는 1개)에 있다.

〈표 15〉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점별 판매비율(1986~1991)
(단위 : %)

판매점 종류 \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타이어 전문소매점	63	62	62	62	61	60
승용차 수리점	20	22	23	22	23	24
서비스 스테이션	10	9	8	8	8	8
할인판매점	8	8	7	8	8	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BRV.

2개의 가장 큰 독립 타이어 소매체인중 하나는 Gummi Mayer로서 167개(독일에 160개, 스위스에 7개)의 독립 타이어소매점을 갖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Reiff GmbH로서 37개의 독립 타이어

〈표 16〉 애프터마켓(aftermarket)에서의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점별 판매비율(1983, 1989)
(단위 : %)

판매점 종류 \ 연도	1983	1989
타이어 전문소매점	60.0	54.7
독립 개리지(Independent garages)	9.0	1.7
계약 개리지(Contracted garages)	11.0	28.7
기 타	20.0	14.9
계	100.0	100.0

자료 : BBE-Autohausstudie.

소매점을 모두 독일에 갖고 있다.

주요 타이어회사인 Michelin은 독일에 Sarona라는 이름의 판매체인을 갖고 있으며, Continental은 Vergoelst 및 Liga라는 이름의 판매체인을 갖고 있는데, Sarona에는 50개의 타이어 전문소매점이 있고, Vergoelst 및 Liga에는 200개의 타이어 전문소매점이 있다.

Goodyear는 독일에 Kempen 및 PPN이라는 이름의, Pirelli는 Pneumobil이라는 이름의, Sumitomo(Dunlop/SO Reifen)는 Holert Konz라는 이름의 판매체인을 갖고 있는데, Kempen 및 PPN은 156개, Pneumobil은 59개, Holert Konz는 76개의 타이어 전문소매점을 갖고 있다. 또한 Bridgestone/Firestone은 독일에 36개의 타이어 전문소매점을 갖고 있다.

6. 전 망

타이어회사의 매수 및 합병이 계속됨에 따라 금세기말에 가서는 몇개의 타이어회사만이 살아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어회사들은 이와 같은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난 몇년 동안에 이익이 줄어들었던 것을 더 많은 이익이 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경영혁신도 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은 타이어의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세계 타이어 총생산량중에서 그 점유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Hanover대학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독일은 앞으로 15~20년 이후에는 타이어 생산을 포기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타이어회사들이 독일의 타이어회사를 많이 매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ontinental이 General 타이어를, Bridgestone이 Firestone을, Michelin이 Goodrich를 매수하였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는 타이어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직도 타이어 생산시설 현대화에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야

하며, 또한 타이어 생산능력도 남아돌고 있다.

서유럽 및 미국에서의 승용차 및 타이어 판매량이 피크를 이룸에 따라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동안 독일이 통일되면서 신차 생산량도 증가하고 자동차등록대수도 늘어났다. 이와같이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차용 타이어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가격이 좋지 않아 타이어회사들은 수요가 증가한만큼의 이익을 낼 수가 없었다. 앞으로 몇년간은 자동차등록대수는 정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됨에 따라 교환용 타이어 판매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통일전의 동독에서는 중고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용 타이어 판매량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타이어회사들은 타이어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시장 개척을 계속하고 있다. 동유럽에서는 국민들의 가계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가계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타이어 생산면에서 보면, 타이어회사들은 타이어 생산시설을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옮기고 있으며, 이것은 독일에 있는 타이어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유럽에 있는 몇몇 타이어회사들의 생산시설은

현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는 데다 아직도 1950년대의 서유럽 수준이다.

앞으로 자동차업계와 타이어업계의 관계는 타이어업계쪽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두 업계의 협력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지만, 자동차회사에서는 타이어 공급회사를 몇 개만 선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타이어업계에서는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폐타이어 처리 등 환경보전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표 17〉 1992년도 교환용 타이어 판매전망
(단위: 1,000개)

타이어 종류	구분 연도	통일독일		통일전 독일	
		1991	1992	1991	1992
승용차용	겨울용 타이어	6,545	6,600	400	550
	여름용 타이어	23,050	24,300	2,550	3,250
	계	29,595	30,900	2,950	3,800
소형 상용차용 타이어		1,955	2,000	300	420
중·대형 상용차용 타이어		1,550	1,640	250	280
모터사이클용 타이어		1,060	1,080	970*	985*
농업기계용 타이어		260	250	140	130
건설차량용 타이어		12	12	-	-
계		34,432	35,882	4,610	5,615

*EIU 추정

자료: BRV.

자료: EIU Rubber Trends/March 1992

번역: 李源善/協會 技術部長

품질 좋고 값도 싼 우리나라 타이어를
세계가 알아줍니다.